

##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위한 민·관·학 TF 17일 출범

- 안전한 부동산중개 거래 질서 확립 위해 국토부-전문가 한자리에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,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·관·학이 참여하는 「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」를 구성하고 5월 17일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하고, 부동산중개업계(한국공인중개사협회, 플랫폼 업계), 유관기관(지자체, 한국부동산원 등), 민간전문가(국토연구원, 학계), 청년·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으며,
-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불법 중개 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,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,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,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갯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,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.
-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“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”면서,
- “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국토교통부<br>부동산개발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동주 (044-201-343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서태진 (044-201-3412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현정 (044-201-3435) |
|               |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     | 책임자 | 단 장 | 김성호 (044-201-3589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| 박태진 (044-201-4606) |



◆ 전세사기 예방 관련 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, 유관기관,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/F 구성·운영 추진

## □ 검토 배경

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업계의 책임 및 역할 강화 요구 증대
- ⇒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「**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/F**」를 운영 추진

## □ 중개업 제도개혁 T/F 운영계획(안)

- **(구 성)** 정부, 지자체, 업계, 전문가, 청년, 시민단체 포함 18명



- **(논의 안건)** 전세사기 예방 관련 중개제도 개혁방안
  - 1) (중개거래 안전성 강화) 불법행위 단속·처벌 강화, 중개책임 강화, 공제제도 개선
  - 2) (중개사 전문성 제고) 중개사 자격·교육제도 개선
  - 3) (편리한 거래환경 조성) 전자계약 활성화, 임대차신고 편의 제고
- **(운 영)**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 마련시까지(3개월限) 격주로 개최
  - 안전별로 별도 전문가 참여 또는 소규모 실무 T/F 운영 가능